

# 월요일엔 바로크 음악, 수요일엔 재즈와 강연

## 광주문화재단 기획 프로그램 발표

월요일콘서트 강숙자오페라라인 등 매주 공연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 날' 재즈밴드 9차례  
정갑균·최태지·강현 등 '수요렉처콘서트'

광주문화재단이 빛고을아트스페이스(남구 구동)에서 선보이는 올해 기획 프로그램 일정을 최근 발표했다. 바로크 시대 음악으로 꾸며지는 '월요일콘서트'와 재즈 콘서트가 펼쳐지는 '열린 소극장', '수요렉처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강연이 무료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 ◇재즈의 향연 '열린 소극장'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열리는 '열린 소극장' 무대에는 오는 11월까지 9차례의 재즈 콘서트 '재즈 온 스테이지'가 진행된다.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열리는 첫 공연에는 광주지역 청년 재즈밴드 'SOOF'가 나온다.

이날 미국 음반사 '블루노트'에서 활동하는 호세 제임스의 '세이브 유어 러브 포 미'와 에스페란자 스팔딩의 '아이 노우 유 노우', 타나 알렉스 '그루브 툰'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정관영(피아노), 김한빈(기타), 이다훈(드럼), 최수빈(보컬)이 작곡한 '숲을 보다', 'ooDoomchit', 'Rubber', 'Bloom' 등도 만날 수 있다.

이어 '더블루이이즈' (4월), 'JS뮤지션스그룹' (5월), '문화이음사람' (6월), '양리머스' (7월), '에드뮤직컴퍼니' (8월), '강윤숙의 재즈여행' (9월), '레인아트앙상블' (10월), '리페이지' (11월)의 무대가 진행된다. 공연 2일 전 무료 예약 062-670-7636.

### ◇바로크 여행 '월요일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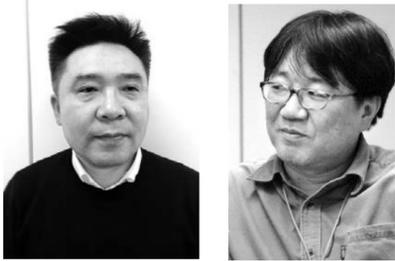
다음 달 15일 오후 7시 30분 시작하는 '월요일콘서트'에서는 16세기 말-18세기 중기 바로크 음악여행을 떠난다. '월넛풀 바로크 20'이라는 제목을 내건 이번 공연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단체가 다양한 기악·성악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첫 공연에 나서는 여성 성악단체 '더 싱어즈'는 퍼셀의 대표 작품 '음악은 잠시 동안'과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라면', 헨델의 오페라 '줄리오 체자레' 중 '나의 운명에 탄식 하리라', '리날도' 중 '울게 놓아두오' 등 주옥 같은 아리아



오는 27일 재즈밴드 'SOOF'가 광주문화재단 '열린 소극장' 무대를 꾸민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장용석

강현

를 무대에 올린다. 소프라노 유형민이 해설하고 소프라노 구성희·권효진·김숙영·김지영·나혜숙·박수연·박하영·정수연, 피아니스트 박지현이 출연한다.

(사)강숙자오페라라인은 같은 달 22일 카치니, 카라치미, 비발디 등의 오페라 아리아를 연주하며 '바로크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앙상블 '아미고'는 29일 바흐의 칸타타와 알비노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사단조' 등을 랩비라트와 루벤스의 미술작품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회장을 지낸 서상중씨의 '고음악 여행' (5월13일·20일·27일) ▲앙상블 P&S '스토리 오브 바로크' (6월3일) ▲(사)문화예술진흥회 '헬로! 바로크' (6월10일) ▲내셔널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바로크 이야기' (6월17일) ▲광주호른사운드 '호른, 바로크의 선율

에 물들다' (6월24일)가 이어진다. 하반기에는 줄리브라스사운드·디엠씨아트컴퍼니·(사)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브라스 인 광주·앙상블 마주얼 (9월), 광주여성솔리스트·K아트앙상블·실내악 앙상블 '소울 플로우'·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 (10월), 반도내온김곡주밴드 (11월) 등이 공연을 마련한다.

### ◇명사와 함께 '수요렉처콘서트'

오는 4월3일부터 11월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문화예술 분야 명사들의 강연 '수요렉처콘서트'가 열린다.

첫날에는 장용석(56) 전 전남음악작곡작사가가 강단에 서서 '월드뮤직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프로듀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문위원 등을 지낸 그는 다채로운 세계음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정갑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의 '오페라의 이해 1-2부' (4월17일·5월8일)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낭만발레:라 실피드' (5월22일) ▲조은아 서울역사박물관 예술감독 '오케스트라 경청의 하모니' (6월5일)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클래식의 이면/내면' (6월19일·9월18일) ▲최태지 감독 '피터 이리히 차이코프스키' (10월16일) 강연 등이 펼쳐진다.

11월20일에는 강현(57) 경기문화재단 대표가 '로큰롤과 세대의 혁명'으로 렉처콘서트를 마무리한다. 문의 062-670-794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냉전 반공주의 논리 뿌리는 어디인가

김봉국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냉전과 투쟁' 펴내

역사가 E. H. 카는 "우리가 어딘가로 부터 왔다는 믿음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믿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그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곧 우리의 미래는 지나온 과거에 있다는 의미로 수렴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 문제가 세계의 관심사로 부상했지만 오랜 시간 고착화된 분단체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분단과 전쟁이 초래한 '반공유사화'의 법, 제도, 문화, 감정의 구조 등은 현재까지도 한국사회 제반 영역을 가로질러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분단체제의 질곡을 분석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김봉국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가 펴낸 '냉전과 투쟁' (선인)은 냉전 반공주의의 시각과 논리가 어디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책은 감성총서 시리즈로 발간됐으며 김 교수의 박사학위논문과 그 후속작업 결과물이다. '전후 한국의 세계해석과 의미결정(1945-1953)'이라는 부제가 말해주



냉전과 투쟁

듯, 저자는 해방 후 시대와 대화를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구조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저자는 냉전 반공주의가 낳은 '예속화된 삶'과 공식화된 집단 기억 뒤에 가려진 과거를 주목한다. 냉전질서가 다분히 이질적이고 파편적인 요인들이 빚어낸 모순과 갈등, 폭력 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울퉁불퉁한 주름을 가진 과거를 드러내어 '자연화'되고 '절대적 가치'로 '신화'화된 냉전 반공주의를 역사화하고자 한다. '원래 그래'라는 본질주의 시선을 해제하는 작업이 곧 새로운 사회를 열고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한다."

저자는 분단체제의 특이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조명 없이는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를 진단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평화와 공생을 위해 과거와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대원음악상 대상에 피아니스트 조성진

대원문화재단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공헌한 음악가에게 수여하는 올해 제 12회 대원음악상 대상 수상자로 피아니스트 조성진(25·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성진은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한 이후 세계 유수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특별공헌상에는 1세대 소프라노이자 교육자로 활약한 성악가 이규도가, 촉망 받는 신인 음악가에게 수여하는 신인상



조성진

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각각 선정됐다.

대원음악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억 원이 수여되며, 특별공헌상 수상자와 신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3000만원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시설 추가 공모

광주문화재단, 29일까지

광주문화재단은 '2019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문화시설을 오는 29일까지 추가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해 전문 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광주·주요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문화시설이다.

최종 선정된 운영기관은 지정교육기관에서 배출된 문화예술교육사 1명을 공

개채용해야 하며 해당기관의 시설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최대 8개월)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12차시 이상)이며 문화재단은 총 7개소 내외의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방법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5763, 576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백제문화의 정수 석탑 사진전

26일~4월21일 국립나주박물관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 담양 연동사지 삼층석탑(전남문화재자료 제200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물 제506호),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보물 제829호)...

백제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석탑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자리 마련된다.

국립나주박물관추원회(이사장 이순옥)와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26일부터 4월 21일까지 사진전 '석탑에 깃든

백제의 숨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후원회가 창립된 지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사진전에서는 문화재사진연구소 회원들이 촬영한 백제 석탑과 백제 석탑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 백제계 석탑을 소개한다. 이번에는 박영희, 윤영녀, 윤태홍, 장선필, 주영기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백제계 석탑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고려시대 불교가 중앙을 벗어나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며 토착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막일인 26일 오후 3시에는 장선필 사



운영녀 작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진작가가 '문화재와 사진'이라는 주제로 7823.

특별 강연을 펼친다. 문의 061-3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